



4th Week, October

주간 도내언론 키워드 및 해외 정책동향

Vol. 12

주간 도내언론 키워드 및 해외 정책동향

□ 주간 도내언론 주요 키워드

- 제주지역 ①정치·행정, ②경제·관광, ③지역·사회 등 3개 분야 언론의 주요 키워드 분석 결과

분야	주요 키워드
정치·행정	주민투표, 기초자치단체, 국정감사, 국가유산, 외국인
경제·관광	감귤 상품, 수출, 싱가포르, 중국, 해녀
지역·사회	장애인, 광주, 바다, 교수, 스토킹

※ 분석 기간 : 10월 17일~10월 23일 ;

대상 언론사 : 한라일보, 제주일보, 제주매일, 제민일보, 뉴제주일보, 제주의소리, 헤드라인제주

- 정치·행정 분야의 키워드가 도출된 주요 보도 내용(※ 8-10 페이지 참고)

정치·행정	주민투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주 주민투표 지연 전망 - 국회에서의 주민투표 요청 - 주민투표의 정치적 논의
	기초자치단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 - 기초자치단체와 주민투표 - 기초자치단체 부활의 우려
	국정감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주 관광 위기 - 행정체제 개편 논의 - 사격장 건립 논란
	국가유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주해녀어업의 세계농업유산 - 제주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- 국가유산 활용 정책 강화
	외국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 - 외국인 노동자 문제 -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

○ 경제·관광 분야의 키워드가 도출된 주요 보도 내용(* 10~12 페이지 참고)

경제·관광	감귤 상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주 감귤의 수출 확대 - 러시아 감귤 수출 감소 - 제주 감귤 수출 전략
	수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감귤 수출 성과 - 음료 수출의 성공 - 농축산물 수출 도전
	싱가포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주 감귤의 싱가포르 시장 진출 - 제주 관광과 싱가포르 협력 - 싱가포르와의 수출 상담 성과
	중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국과의 감귤 수출 재개 - 중국산 농산물 경쟁 - 제주 감귤의 중국 내 수요
	해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녀 문화 관광 상품 - 해녀와의 대화 프로그램 - 해녀 문화의 글로벌 유산화

○ 지역·사회 분야의 키워드가 도출된 주요 보도 내용(* 12~13 페이지 참고)

지역·사회	장애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장애인 고용 확대 - 장애인 시설 확충 필요성 - 장애인 문화 프로그램
	광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광주교도소 유골 발굴 - 제주 4·3 희생자 유골 조사
	바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양 생태계 보호 - 해양쓰레기 문제 - 해양 생물 구조
	교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교수 성과 평가 개선 요구 - 교수진 교육의 질 향상 - 교수 노동 환경 개선
	스토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스토킹 범죄 대응 강화 - 스토킹 범죄 감소 추세 - 스토킹 피해자 보호 시스템

□ 주간 해외(아시아) 정책동향

○ 중국

- ✓ 산둥성 옌타이(烟台市) 자유무역구는 새로운 통관 정책 시행을 통해 기업의 수입 편리화를 촉진, 세관 통과 속도를 제고 및 담보 비용면제 등 내용을 포함
- ✓ 중국 충칭시(重庆市) 평수이(彭水) 먀오족(苗族) 마을은 국제 협력 시범 지역으로 지정되어 농촌 진흥을 도모,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문화 보존의 목표로 설정
- ✓ 중국은 상품 바코드의 유형이 QR코드로의 전환을 추진하여 무역 데이터의 정확성과 추적성을 강화. 이를 통해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더 나은 정보 제공과 물류 관리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
- ✓ 지린성(吉林省) 정부는 9대 주요 개혁 과제를 발표하여 국경 안정성 강화, 식량 안전 보장, 신재생 에너지 개발 등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할 계획
- ✓ 2024년 자동차 소비 촉진 정책으로 전기차 교체 수요가 주류로 부상하며, 전체 차량 교체 중 전기차의 비중이 60%를 초과. 자동차 보조금 정책 강화와 기술 혁신이 앞으로도 중요할 것으로 예상
- ✓ 중국 기업들은 해외에서 고위 경영진 체포, 수출 물품 압류 등 4대 주요 리스크에 직면.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해외 법적 요건 준수와 새로운 규정에 대한 대비가 필요
- ✓ 중국은 해양을 관광 강국 건설의 새로운 전략적 공간으로 삼고 있으며, 해양 관광의 개발을 통해 경제 성장과 관광 산업의 질적 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임
- ✓ 10월 21일 베이징에서 '국가 고신구(高新区) 인공지능 산업 협동 혁신 네트워크'가 출범, 고신구의 장점을 살려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

○ **싱가포르**

- ✓ 싱가포르는 2024년 상반기에 54억 달러 규모의 고정 자산 투자를 유치, 글로벌 기업들의 주요 투자지로 유명. 기술 업그레이드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

○ **필리핀**

- ✓ 아랍에미리트는 필리핀의 물류 및 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 기회 모색, 신규 항만과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, 필리핀 경제 성장과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

○ **태국**

- ✓ 태국은 약 19억 바트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을 지원, 저금리 대출과 부채 유예를 통해 중소기업의 유동성 문제 해결
- ✓ 태국 중앙은행은 4년 만에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여 2.25%로 조정. 경제 성장 둔화와 물가상승률 하회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, 가계 부채가 높은 상황에서도 경제 성장 촉진

○ **인도네시아**

- ✓ 인도네시아는 중국산 세라믹 타일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예정. 이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, 향후 5년간 시행될 계획

○ **말레이시아**

- ✓ 말레이시아는 대만의 아시아 수출 관문으로 부상, 반도체 산업과 스마트 시티 개발 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. 양국 간 협력은 상호 이익을 제공하며, 아시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전망

- ✓ 말레이시아는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제조업 클러스터 개발을 추진, 이를 통해 글로벌 제조업 허브로 부상할 전략적 목표로 설정
- ✓ 말레이시아는 중국 기업들의 지역 본부 설립을 독려, 신재생에너지 차량과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. 다양한 고성장 부문에 대한 투자와 협력이 논의
- ✓ 말레이시아는 현지 기술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, 디지털 경제 기본 협정을 통해 아세안 내 디지털 통합을 추진. 고부가가치 디지털 투자 유치가 목표로 설정

○ **일본**

- ✓ 홋카이도 비에이정은 관광지 '푸른 연못' 주차장에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여 오버투어리즘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 마련. 세수는 관광 시설 유지와 관리 비용에 사용될 예정임
- ✓ 홋카이도는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 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을 추진.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제조업체의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획 마련
- ✓ 일본 스타트업 로보텍스는 드론에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소형 장비를 개발하고 후쿠시마에서 공개. 수소 연료 드론의 비행시간을 늘리고 효율적인 충전 시스템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
- ✓ 도호쿠 지역의 8월 광공업 생산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하며 자동차 및 엔진 생산이 크게 감소. 경제산업국은 경제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
- ✓ 미야기현은 2025년 11월부터 숙박세를 도입할 계획이며, 이 세수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자원으로 활용될 예정. 숙박세는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기대

- ✓ 일본 가마쿠라시에서는 자전거 공유 서비스가 관광지 혼잡 해소와 현지 주민 교통 문제 완화를 목표로 설정.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 가능
- ✓ 규슈·오키나와 지역에서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의료기관의 파산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. 코로나19 이후 경영 악화와 투자 비용 증가가 원인으로 해석
- ✓ 일본 벳푸의 숙박 시설들이 대규모 리뉴얼을 통해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를 강화, 정부 보조금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. 코로나19 이후 관광산업 회복을 목표로 설정

Contents

- ☑ 언론분석: Word Cloud
- ☑ 해외(아시아) 정책동향



1 언론분석: Word Cloud

- 2024년 10월 17일~10월 23일 기간, 제주 주요 7개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정치·행정, 경제·관광, 지역·사회 등 분야의 관련 보도 총수는 약 774건임
 - 이 중 정치·행정 분야 뉴스 325건, 경제·관광 분야 149건, 지역·사회 분야 300건임
 - * 제주 대표 언론사: 한라일보, 제주일보, 제주매일, 제민일보, 뉴제주일보, 제주의소리, 헤드라인제주
- 325건 정치·행정 뉴스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, 주민투표, 기초자치단체, 국정감사, 국가유산, 외국인 등 키워드로 나타남



[그림 1] 정치·행정 분야 뉴스의 Word-Cloud

○ 정치·행정 분야의 키워드를 산출하는 주요 원인 :

주민투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주 주민투표 지연 전망 ·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가 행안부의 추가 자료 요청으로 연기될 가능성 존재 · 행안부는 충분한 자료 검토 후 주민투표 필요성 판단 예정 - 국회에서의 주민투표 요청 · 제주자치도는 국정감사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
------	---

정치·행정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연내 주민투표 가능성 언급, 국회의 긍정적 반응 도출 - 주민투표의 정치적 논의 · 행안부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 결정을 위해 추가 검토 · 3개 시로 쪼개는 문제는 역사적 선례가 없는 중요한 결정임을 강조
	기초자치단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 · 제주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통해 도내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과 지역 간 불균형 문제 해결을 기대 ·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국회 차원의 관심을 요청 - 기초자치단체와 주민투표 · 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 진행 · 연내 주민투표의 필요성 및 기초자치단체 설치 시 행정체제의 변화가 큰 논의가 될 전망 - 기초자치단체 부활의 우려 · 일부 의원들은 기초자치단체 부활 시 제주도 예산의 감소 가능성에 대해 우려 ·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인식이 확산
	국정감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주 관광 위기 · 국정감사에서 제주 관광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위기감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제기 · 일본과의 여행비용 비교 문제와 관광 만족도 하락이 논의 - 행정체제 개편 논의 · 국정감사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논의가 주요 의제로 등장 · 국회 차원에서 제주도의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의 필요성을 언급 - 사격장 건립 논란 · 알뜨르 비행장 부지에 사격장을 건립하려는 제주도의 계획에 대해 우려 · 사격장 건립 계획이 역사적 의미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
	국가유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주해녀어업의 세계농업유산 · 제주해녀어업이 세계중요농어업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제주 해녀 문화 육성 방안이 논의 · 해녀어업의 전통가치를 확산하고 산업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 중간 보고회 개최 - 제주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· 제주도의 전통적 문화유산인 해녀어업을 보호하고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위한 발전계획 수립 중. ·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여 국가유산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 - 국가유산 활용 정책 강화 · 제주 해녀어업의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를 기념하여 이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구체화될 전망 · 해녀문화를 국가 유산으로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계획
	외국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 · 제주 관광산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련된 전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

경제·관광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러시아 시장의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다른 아시아 시장 공략이 지속 - 제주 감귤 수출 전략 · 제주 감귤의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해 새로운 수출 경로를 개척. 감귤의 품질을 강화하여 다양한 국가로의 수출을 촉진
	수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감귤 수출 성과 · 감귤 수출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, 제주 농협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새로운 시장으로 확장 · 감귤 상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있어 다양한 수출 협정과 바이어 발굴 활동이 진행 - 음료 수출의 성공 · 제주에서 생산된 한라봉, 청귤 등의 음료가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여 1만 5,800달러의 수출 성과를 기록 · 현지 유학생의 지원을 통해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바이어와의 협력 강화 - 농축산물 수출 도전 · 제주산 농축산물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인해 일부 수출길이 막혔으나, 다른 시장을 대상으로 확장 계획 · 감귤 외에도 다양한 농산물과 축산물이 새로운 수출 전략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
	싱가포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주 감귤의 싱가포르 시장 진출 · '싱가포르 제주의 날' 행사에서 제주 감귤의 우수성이 홍보되었으며, 싱가포르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이 진행 · 2023년 감귤 수출량이 509톤으로 증가했으며, 싱가포르가 중요한 수출 시장으로 부상 - 제주 관광과 싱가포르 협력 · 싱가포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제주 관광상품 홍보가 강화. 특히 레저 스포츠와 감귤 체험 등이 인기세 · 제주관광공사와 싱가포르 현지 여행사 간의 협력을 통해 관광객 유치 전략 강화 - 싱가포르와의 수출 상담 성과 · 제주 농협은 싱가포르와의 수출 상담을 통해 10건 이상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, 감귤 외에도 다양한 농산물이 수출될 예정 · 싱가포르 바이어들과의 협력을 통해 감귤 수출 시장 확장
	중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국과의 감귤 수출 재개 · 중국과의 무역 제약이 완화되면서 감귤 수출이 다시 증가할 전망 · 중국 시장은 제주 감귤의 중요한 수출 경로로, 지속적인 교류가 필요 - 중국산 농산물 경쟁 · 중국산 감귤과의 경쟁이 재개되면서 제주 감귤의 품질과 수출 전략에 대한 강화가 요구 · 제주 농협은 품질 관리와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 - 제주 감귤의 중국 내 수요 · 제주 감귤의 인기는 여전히 높으나, 중국 내 다른 감귤 생산국과의 경쟁이 치열 ·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현지의 소비자와 유통망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이 중요하게 논의
	해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녀 문화 관광 상품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제주 해녀 문화를 알리기 위한 체험형 관광 상품이 큰 인기 · 세화와 김녕리에서 진행되는 해녀 체험 프로그램은 현지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매력적인 콘텐츠로 평가 - 해녀와의 대화 프로그램 · 해녀들이 직접 운영하는 관광 프로그램이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음. 해녀와의 대화를 통해 제주 해녀 문화의 깊이를 체험 가능 · 이 프로그램은 해녀 마을의 경제적 활성화에도 기여 - 해녀 문화의 글로벌 유산화 · 제주 해녀 문화가 유네스코에 등재되면서 글로벌 관광 자원으로 부상 · 해녀의 고유 문화를 보존하면서도 관광객에게 전하는 경험을 지속적으로 개발
--	---

○ 300건 지역·사회 뉴스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, 장애인, 광주, 바다, 교수, 스토킹 등 키워드로 나타남



[그림 3] 지역·사회 분야 뉴스의 Word-Cloud

○ 지역·사회 분야의 키워드를 산출하는 주요 원인 :

장애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장애인 고용 확대 · 제주신화월드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협력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조성 · 지역 내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확대 - 장애인 시설 확충 필요성 · 제주도의 장애인 지원 시설 부족으로 인한 문제 제기 · 시설 확충과 지원 예산 증가가 필요한 상황으로 정부의 지원 요청이 강조 - 장애인 문화 프로그램 · 장애인을 위한 문화 및 체험 프로그램이 확대
-----	---

지역·사회		· 예술 및 스포츠 분야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 추진
	광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광주 교도소 유해 발굴 · 2019년 광주 교도소에서 발견된 무연고 유해가 제주 4·3 희생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 · 유전자 검사를 통해 추가적인 희생자 확인 작업이 요구 - 제주 4·3 희생자 유골 조사 · 제주 4·3 희생자 중 광주 교도소 수감자들이 학살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에 대한 조사가 진행 · 유해 발굴과 진상 규명에 대한 요구가 상승
	바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양 생태계 보호 · 제주 해역에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생태허브 조성 예산 삭감 · 환경 단체들은 정부의 지원 확대와 보호구역 지정 강화를 요구 - 해양쓰레기 문제 · 제주 해안가에 해양쓰레기 문제 심각 · 주민들과 환경 단체들이 협력하여 청소 활동과 쓰레기 수거를 지속적으로 추진 - 해양 생물 구조 · 제주 해안에서 그물에 걸린 바다거북을 구조하는 작업 진행 · 해양생물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필요성 강조
	교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교수 성과 평가 개선 요구 · 제주대학교에서 교수 성과 평가 제도 개선이 논의 · 학생들 역시 교수진의 강의 평가에 대한 공정한 기준 요구 - 교수진 교육의 질 향상 · 제주대학교는 교수들의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 · 교수진의 연구 성과와 교육 성과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 - 교수 노동 환경 개선 · 제주지역 교수들은 노동 환경 개선과 학문적 자율성 보장 요구 · 교육 당국과의 협의가 지속되고 있으며, 교수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논의
	스토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스토킹 범죄 대응 강화 · 제주에서 스토킹범죄 신고 건수는 감소했으나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대응 강화 · 긴급응급조치와 접근금지 명령을 통한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전국에서 고수준 - 스토킹 범죄 감소 추세 · 제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 신고 건수가 매년 감소 · 관계 당국은 교제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과 정책 추진 - 스토킹 피해자 보호 시스템 · 제주 지역에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민간대응시스템이 시행 ·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강화

2 해외(아시아) 정책동향

지역	제목 및 주요 내용
중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둥성 엔타이 자유무역구, 기업 통관 편의 정책 시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산둥성 엔타이 자유무역구는 “관바오통(关宝通)”이라는 통관 편의화 정책을 도입하여 기업의 수입 상품 통관을 지원하고 있음. 이 정책은 기업이 담보 비용 없이 세관을 빠르게 통과할 수 있게 함 -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519건의 수입 상품이 편의 정책을 통해 당일 신고 및 당일 통관 혜택을 받음. 이를 통해 연간 약 300만 위안의 비용 절감이 예상됨 - 이 정책은 자유무역구 외의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될 예정이며, 이미 5억 4천만 위안 이상의 보증금을 통해 60억 위안 이상의 기업 자금을 활성화함 - 기업들은 통관 시 세금을 나중에 지불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, 이러한 편의성을 통해 수출입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中 충칭(重庆), 농촌 진흥 국제 협력 시범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충칭시 평수이(彭水) 묘족(苗族) 토가족(土家族) 자치현은 충칭시 최초의 농촌 진흥 국제 협력 시범 지역으로 지정됨 - 평수이는 산악 지역과 농촌 지역이 혼재된 지역으로, 묘족이 많이 거주하는 중국의 대표적인 묘족 마을임 - 현지 정부는 타국, 라오스, 캄보디아 등 5개국과 협력하여 농촌 발전을 도모하고, 묘족 문화를 중심으로 한 시범 지역을 조성할 계획임 - 지역 주민들은 고구마와 약재 등을 중심으로 한 농업을 통해 소득을 증대하고 있으며, 2023년 평균 소득이 15.9% 증가함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국, 상품 바코드 통일화 전환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국은 전국 통일 시장 건설의 일환으로 상품 바코드를 기존의

지역

제목 및 주요 내용

중국

바코드에서 QR코드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

- 이 전환은 상품의 데이터 디지털화와 상호 연결성을 증진시키며, 무역 데이터의 정확성과 추적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.
- 이를 통해 소비자는 상품 정보를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게 되며, 기업은 물류 관리 및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
- 현재 중국 내 상품 데이터는 2억 종을 초과하였으며, 90% 이상의 주요 상품을 포함하고 있음

○ 지린성, 9대 주요 개혁 과제로 지역 발전 촉진

- 지린성 정부는 최근 9개의 주요 개혁 과제를 발표하여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할 계획임
- 주요 과제는 국경 지역 안정성 강화, 식량 안전 보장, 재난 예방 시스템 구축, 신재생 에너지 개발 등을 포함함
- 이 과제는 지린성의 전반적인 발전과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됨
- 지린성은 이를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, 특히 국경 지역의 주민 생활 향상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계획임

○ 중국 자동차 소비 촉진 정책, 교체 수요가 주류로 부상

- 2024년 자동차 소비 촉진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, 기존 차량을 신차로 교체하는 수요가 주요 소비 패턴으로 자리잡음
- 설문 조사에 따르면,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소비 쿠폰이 자동차 구매 의사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함
- 특히, 오래된 차량 교체와 함께 전기차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 중이며, 전체 차량 교체 중 전기차의 비중이 60%를 초과함
- 자동차 산업 관계자들은 앞으로도 기술 혁신을 통해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, 자동차 보조금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함

지역

제목 및 주요 내용

중국

○ **중국 기업의 해외 권익 보호 백서 발표**

- 중국 기업은 최근 해외에서 고위 경영진 체포, 수출 물품 압류, 장비 압수 및 거액의 벌금 등의 4대 주요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음
- 미국은 여전히 중국 기업에 대해 가장 많은 해외 집행을 실시하는 국가로, 경제 제재와 수출 규제는 주요 집행 이유임
- 중국 기업은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복잡한 법적, 사회적 환경을 숙지하고, 해외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함
- 특히, 유럽연합(EU)의 외국 보조금 규정 등 새로운 법령과 관련된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

○ **중국 여유연구원장, 해양 관광 발전의 추진 강조**

- 중국 관광 연구원장은 해양이 관광 강국 건설을 위한 중요한 전략적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발표함
-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국내 관광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나, 해양 관광은 아직 개발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됨
- 해양 관광은 자원 확장과 국민의 해양 의식 고취에 기여할 수 있으며, 다양한 해양 관련 관광 상품과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됨
- 앞으로 해양 관광 개발을 통해 경제 성장과 관광 산업의 질적 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임

○ **국가 고신구(高新区) 인공지능 산업 협동 혁신 네트워크 베이징에서 설립**

- 10월 21일 베이징에서 '국가 고신구(高新区) 인공지능 산업 협동 혁신 네트워크'가 공식 출범. 본 행사의 주제는 “고신구의 힘을 모아, 지능형 미래를 함께 창조하다”로 설정
- 본 네트워크는 산업 및 정보화부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베이징 중관촌(中关村), 상하이 창장 고신구(长江高新区), 난징 고신구(南京高新区) 등 11개의 고신구가 참여. 목표는 국가 고신구의 장점을

지역	제목 및 주요 내용
	<p>살려 인공지능 산업의 고도성장을 촉진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베이징시 부비서장 허신차오는, 국가 기술 경쟁에서 인공지능 개발과 응용이 중요한 전략적 역할을 강조하며,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을 확대하고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협력 체계의 중요성을 언급함 - 본 회의에서 중관춘 선언이 발표되어, 기술, 산업, 자본, 인재 등의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, 인공지능 발전 성과를 공유할 것을 강조함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싱가포르</p>	<p>○ 싱가포르, 약 54억 달러 투자 유치 확보...최상위 투자 유치국 지위 유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싱가포르 경제개발위원회는 2024년 상반기에 약 54억 달러 규모의 고정 자산 투자를 유치하며, 계속해서 최상위 투자 유치국으로 자리잡고 있음 - 다이슨,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들이 일부 직원을 해고했으나, 주요 투자 유치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됨 - 정부는 기술 업그레이드와 직무 매칭을 통해 퇴직 근로자들을 지원하고 있으며, 아마존 웹서비스와 아스트라제네카의 대규모 투자 약속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임 - 싱가포르 국민의 60% 이상이 외국계 기업에서 근무하며, 월평균 1만 2,500달러 이상의 소득을 기록하고 있음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필리핀</p>	<p>○ 아랍에미리트, 필리핀 물류 및 재생 에너지 분야에 투자 관심 표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아랍에미리트 기업들이 필리핀의 물류 및 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 기회를 모색하고 있음 - 물류 대기업 DP월드사는 필리핀 전역에 신규 항만을 개설할 계획이며, 필리핀 내 최대 250억 페소를 투자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- 또한, 재생 에너지 기업 마스다르는 필리핀에서 태양광, 풍력, 배터리 제조업에 최소 6억 페소를 투자할 계획임 - 이러한 투자는 필리핀의 경제 성장과 친환경 에너지 이니셔티브

지역	제목 및 주요 내용
태국	<p>브를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</p> <hr/> <p>○ 태국,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규 기금 조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태국 산업부는 약 19억 바트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임 - 중소기업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, 부채 유예 조치를 통해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- 또한, 태국 중소기업 개발은행과 협력하여 3개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- 산업 개혁 기금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, 새로운 기술 습득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인큐베이션 센터도 설립될 예정임
	<p>○ 태국 중앙은행, 4년 만에 기준금리 인하 발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태국 중앙은행은 4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여 2.25%로 조정함 - 금리 인하는 물가상승률이 목표 범위를 하회하고 경제 성장이 둔화된 상황을 반영한 조치임 - 태국 정부는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중앙은행에 금리 인하를 촉구해왔으며, 가계 부채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도전 과제로 남아 있음 - 여타 아세안 국가들도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에 따라 금리 인하를 검토 중임
인도네시아	<p>○ 인도네시아, 중국산 세라믹 타일에 반덤핑 관세 부과 예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인도네시아 정부는 10월 24일부터 중국에서 수입되는 세라믹 타일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예정임 - 약 30개의 중국 기업이 이번 관세 부과 대상이며, 1제곱미터당 최소

지역	제목 및 주요 내용
	<p>1만 3,446루피아에서 최대 9만 4,544루피아까지 관세가 부과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이러한 반덤핑 조치는 인도네시아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, 향후 5년간 시행될 예정임 - 이번 조치는 중국, 한국, 대만에서 생산되는 평판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에 이은 추가적인 보호 조치로, 지역 제조업체를 보호하는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임
<p>말레이시아</p>	<p>○ 말레이시아, 대만의 아시아 수출 핵심 관문으로 부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말레이시아는 대만의 주요 아시아 수출 관문으로 자리잡고 있으며, 반도체 산업 및 스마트 시티 개발 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- 가오슝 부시장은 말레이시아와 대만 간의 스마트 헬스케어 및 이동성 분야의 협력을 강조하며, 말레이시아를 전략적 파트너로 평가함 - 말레이시아의 디지털 전환 리더십은 양국 모두에게 상호 이익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며, 이번 방문은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임 - 이러한 협력을 통해 말레이시아와 대만은 아시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, 스마트 기술 분야에서의 공동 발전을 도모할 계획임
	<p>○ 말레이시아, 중부 지역 제조업 클러스터 개발 우선 추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말레이시아 정부는 중부 지역의 쿠알라룸푸르, 슬랑오르, 네게리 썬빌란, 멜라카 지역을 중심으로 제조업 클러스터 개발을 우선 추진하고 있음 - 이 클러스터 개발은 말레이시아를 글로벌 제조업 허브로 부상하게 할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, 연방 및 주 정부 간 협력을 통해 진행될 예정임 - 국가투자협의회는 관료주의를 줄이고 투자 속도를 높이는

지역	제목 및 주요 내용
	<p>전략을 통해 양질의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클러스터 개발을 통해 지방 정부는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, 경제 성장을 촉진할 계획임
	<p>○ 말레이시아, 자국 내 중국 기업의 지역 본부 설립 독려...국제 확장 지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말레이시아 투자무역산업부 장관은 중국 기업들이 말레이시아를 지역 본부 및 국제 확장을 위한 전략적 위치로 고려할 것을 촉구함 - 말레이시아는 숙련된 다국어 인력과 안정적인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으며, 신흥 산업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있음 - 말레이시아와 중국 간의 협력은 특히 신에너지 차량과 태양광 발전 시스템 분야에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- 이번 포럼에서는 반도체, 신에너지, 헬스케어 등 다양한 고성장 부문에 대한 투자 기회와 성장 가능성을 논의함
	<p>○ 말레이시아, 기술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추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말레이시아 디지털 경제 공사는 현지 기술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- 말레이시아는 2025년 아세안 의장국을 수임할 예정이며, 디지털 경제 기본 협정을 통해 아세안 역내 디지털 통합을 추진할 계획임 - 디지털 경제는 말레이시아 GDP의 약 23.5%를 차지하고 있으며, 말레이시아는 고부가가치 디지털 투자 유치와 디지털 생태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- 특히, 스타트업들에게 국제 시장에서의 기회를 제공하고, 역내 경제 다양성을 활용하는 것이 핵심 전략임
일본	<p>○ 홋카이도 비에이정, ‘푸른 연못’ 주차장에 새로운 세금 도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홋카이도 비에이정은 관광 명소인 ‘시라카네 푸른 연못’ 주차장을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새로운 세금을 부과할 예정임

지역

제목 및 주요 내용

- 대형 차량은 6,000엔, 일반 차량은 1,000엔, 이륜차는 300엔의 세금이 부과될 계획이며, 이를 통해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함
- 새로운 세금은 관광 시설 유지 및 관리 비용에 사용될 예정이며, 법정 외세로는 홋카이도에서 최초로 도입될 것임
- 비에이정은 연간 약 3억 8,000만 엔의 세수를 기대하고 있으며, 다른 관광지에서도 유사한 세금 도입을 검토 중임

○ 홋카이도, 전력 수요 증가로 재생 에너지 및 원자력 재가동 주목

- 홋카이도는 최근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제조업체의 진출로 전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, 이에 따라 재생 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이 주요 이슈로 떠오름
- 2033년까지 홋카이도 내 전력 수요는 2024년 대비 9%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, 이에 따라 재생 에너지와 수소 연료의 보급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
- 홋카이도 전력 회사는 토마리 원자력 발전소의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으며, 이를 통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할 계획임.
- 정부는 2024년 말까지 에너지 기본 계획을 재검토하고, 재생 에너지와 원자력의 비중을 조정할 계획임

○ 드론에 현장에서 수소 충전..신흥 기업이 후쿠시마에서 장비 공개

- 요코하마에 위치한 스타트업 로보텍스는 드론에 수소 연료를 공급하는 소형 충전 장비를 개발하고, 후쿠시마에서 공개함
- 이 장비는 트럭에 장착되어 현장에서 드론용 소형 보트에 수소를 충전할 수 있음
-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드론은 한 번 충전으로 약 2시간 동안 비행할 수 있으며, 이번에 개발된 충전 장비는 한 번에 30개의 소형 보트를 충전할 수 있음

지역	제목 및 주요 내용
일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로보텍스는 후쿠시마 이노베이션 코스트 구조 추진 기관의 지원을 받아, 현지에서 실험을 계속 진행할 계획임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도호쿠 8월 광공업 생산지수, 3개월 연속 하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도호쿠 경제산업국이 발표한 도호쿠 지역 8월 광공업 생산지수가 전월 대비 6.9% 하락하여 3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함 - 반도체 제조 장비와 산업용 로봇 생산은 증가했지만, 자동차 산업은 태풍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크게 감소함 - 특히, 자동차 및 엔진 생산이 17.5% 하락하며 전반적인 생산 하락을 주도함 - 도호쿠 경제산업국은 향후 경제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함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미야기현, 숙박세 조례 승인... 2025년 11월 도입 예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미야기현은 2025년 11월부터 숙박세를 도입할 계획으로, 이번 조례는 미야기현 의회에서 승인됨 - 숙박세는 1인당 1박에 300엔이 부과되며, 6,000엔 이상의 숙박 요금에 대해 적용됨 - 숙박세는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에 위한 자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며, 다국어 안내 및 지역 쿠폰 발행 등에 사용될 계획임 - 미야기현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객 유입을 늘리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임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광과 주민 갈등 완화..가마쿠라 자전거 공유 서비스로 혼잡 해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에서 자전거 공유 서비스가 관광지 혼잡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- 관광객들은 자전거를 이용해 주요 관광지를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으며, 현지 주민들의 교통 혼잡 문제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 - 자전거 대여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

지역**제목 및 주요 내용****일본**

있으며, 대여 장소와 반납 장소가 다를 수 있는 유연성이 있음

○ **규슈·오키나와 지역 의료기관, 파산 건수 역대 최고**

- 규슈·오키나와 지역에서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의료기관의 파산 건수가 11건으로,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
-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환자 수가 회복되지 않아 경영 악화가 지속되고 있으며, 의료기기 및 전산화 장비 투자 비용이 증가하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음
- 병원과 진료소를 포함한 다수의 의료기관이 파산을 신청했으며, 이 중 가장 큰 파산 사례는 약 13억 엔 규모의 부채를 가진 의료 법인임
- 전문가들은 파산 건수가 연말까지 15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

○ **벳푸의 숙박 시설, 대규모 리뉴얼로 관광객 유치 강화**

- 일본의 유명 온천지 벳푸에서 숙박 시설들이 인바운드 관광객을 겨냥해 대규모 리뉴얼 작업을 진행 중임
- 벳푸에 위치한 호텔 뉴츠루타는 3년간 2억 엔 이상을 투자해 객실과 대욕장을 리뉴얼하였으며,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객실을 새로 추가함
-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보조금 프로그램을 활용해 리뉴얼 작업이 가능해짐
- 벳푸의 숙박 시설들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,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음